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8호 【루계 제25817호】 주제 106 (2017)년 11월 4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3월16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3월 16일 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장물인 오수용동지, 박태성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인 홍영철동지, 조용원동지, 유진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들 현지에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1977년 3월 16일에 창립된 공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대규모의 자동차 생산기지로 창성강화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볼소 공장리전도 잡아주시고 공장에서 생산한 첫 증형자동차의 이쁨을 《대백산》호로 명명해주시였으며 공장이 나아갈 앞길을 확실히 밝혀주시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고무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총조립직장, 종합가공직장, 제관직장 등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경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우리 식의 대형분전기체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고 치하하시였다.

완성단계에 들어간 대형분전기체가 불수득 몇몇고 동력전달장치들이 원만히 동작하는것을 보니 정말 힘이 난다고 하시면서 대형분전기체가 완성되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게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고있는 대형분전기체여서 정이 꼭 들고 더없이 기쁘다고 하시면서 당의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공장로동계급의 투쟁에 의하여 당에서

보살피실속에 3월16일공장이 자랑스러운 발전행로를 걸어올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이 지난 기간 많은 자동차들을 생산하여 사회주의대건설

들과 인민군대에 보내줌으로써 조국의 부강번영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잘

꾸리었다고 하시면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공장로동계급이 당에서 대단히 중시하는 일에서 살며 투쟁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전무적과업을 빛나게 완철하도록

정해진 날자에 주제적인 대형분전기체가 세상이 보란듯이 탄생할수 있게 되었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3월16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각종 부속품을 가공하고있는 로동자들과 용접불꽃을 날리는 제판공들의 열의가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당의 명령이라면 사소한 주저와 동요가 없이 결단적으로 호응하고 결사판철하고야마는 우리 로동계급의 투쟁본능이 공장안에 차당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월18일 기계종합공장에서 질 좋은 기관들이 뿜뿜 생산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자동차생산과 관련된 부분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한것만큼 3월16일공장을 모체로 하여 현대적인 자동차공업을 창설할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3월16일공장을 현대화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나라의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시고 하시면서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3월16일공장을 우리 나라 자동차산업의 중심으로 전변시키자는것이 당의 의도 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종업원들이 공장을 세계적수준의 자동차생산기지로 꾸릴 데대한 목표와 야심을 알고 달려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생산지휘와 기업관리, 정비, 생산공정의 무인화, 자동화, 흐름선화를 실현하며 최첨단설비들을 비롯하여 자동차생산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그른히 갖추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책임있고 능력이 있는 일꾼들과 전문가들로 개건현대화상무를 조직하고 강력한 설계집단을 꾸려주는것과 함께 자동차공업의 특성에 맞게 협동공생산보장단위들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발전추세를 알수 있게 과학기술보급실도 더 잘 꾸리며 공장로동계급을 위한 문화후생시설들을 훌륭히 건설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자동차산업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시고 하시면서 오늘의 결심이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합쳐 개건현대화 를 분분히 밀고나기까지 열렬히 호소 하시였다.

믿음을 항상 명심하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업사진을 찍으시였다.

3월16일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불멸의 명도자욱을 새기시며 공장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대제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맡겨주신 전무임무를 결사판철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한 없 이 은 헤 로 운 품

주체혁명의 핵심공간으로 키우시던 나날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가의 가망원처럼 임지가 지어지지 않으면서도 혁명가들이 혁명가자녀들을 함양하며 품어내어 혁명혁명의 불꽃을 일으키는 은헤로운 삶의 리전에 뿌리내리도록 하여주시고 그날부터 위대한 생명의 마지막시기까지 혁명가자녀들에게 배려해주신 어머니 수령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였다.》

주제 34(1945)년 10월 어느날이었다. 민경당교향집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시길은 민경당에 혁명가자녀들을 위한 학원을 건설하시려는 구상을 펼치시였다. 그때 한 로인이 마음사람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김형권선생님께서 학교를 세우려고 애쓰신 이곳

을 떠나보내시면서 어디에 가면 어느 때 희생된 누나의 아이를 있을것이고 또 어느때에는 어느 전후에서 전사한 누구누구의 자식들이 있을테이리니 꼭 찾아서 데려오라고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도 혁명가자녀들을 찾기 위해 무척 애를 쓰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각지로 떠나는 유사들을 일일이 만나서 귀중한 간직해오신 수첩에 적혀있는 희생된 전우들의 이름과 고향,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과 생김새, 보호자의 주소 등을 알려주시면서 한두번 찾아 갔다가 없다고 되물어지지 말고 환담이 지나도 좋고 두말이 겁도 좋으니 이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기어코 찾아서 데려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주제 36(1947)년 여름에 돌아오면서 어머니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시길들이 평안

으로 왔다. 유시길들이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날 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찾았다는 반가움과 함께 희생된 전사들의 자식들이 돌아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 학원에서는 지난날 때 두산일대에서 악독한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다가 희생된 혁명렬사의 유시길들이 공부하게 된다고, 우리는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고, 그러하여 이 학원을 나온 유시길들이 돌아간 부모들의 뜻을 계승하여 부강한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건설자들은 혁명가유시길들을 돌보아주는 곳이란 생각했던

이 학원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지닌 곳인지 깊이 깨닫게 되였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왜 우리 민족이 수십년간 일제에게 억눌려 살아왔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것은 바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팔아먹어 겁이 없고 인민을 투쟁으로 이끌어가는 민족간부의 팔간부대가 없

었기때문이라고, 우리에게서는 정치에서나 경제에서나 군사에서나 모든 면에서 팔간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가 아직 어미처럼 학원건설만은 자재나 설비를 적극 보장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모두가 심심결하여 이 학원을 세기일내에 빨리 건설하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열렬한 호소에 건설자들은 일제히 호응해나

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원아들의 생활을 친히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 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기념사진촬영장에 서있는 원아들을 보시면서 일꾼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웠다고, 귀중한 애들이 잘키라도 불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빨리 촬영장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걸음을 계속 하시였다. 자신께서는 눈보라를 맞고 자진해서 견으시기도 하였을 때와 같은, 빨리 촬영장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걸음을 계속 하시였다. 자신께서는 눈보라를 맞고 자진해서 견으시기도 하였을 때와 같은, 빨리 촬영장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걸음을 계속 하시였다.

정경 우리 장군님은 원아들의 자애로운 친어머니이시라는 생각으로 일꾼들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본사기자 김성남

투철한 혁명신념으로 수놓아진 교귀한 한생

애국주의교양을 실속있게

오늘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 동지의 탄생 112주년이 되는 날이다. 뜻깊은 이날을 맞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라 함일대전에 나서시어 열렬혁명가의 기개를 남김없이 펼치신 김형권 동지의 빛나는 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 위대한 수변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하시였다. 《나는 형권삼촌을 생각할 때마다 카름회의결정을 관철하는 길에서 최후를 서슴없이 내던진 수많은 전우들을 본받아 그러되겠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려면 그 관철을 위하여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투쟁하신 집결한 혁명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무장투쟁의 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조선혁명군의 첫 무장조조를 이끄시고 국내전투를 단행하신 김형권동지께서 조국방위과업에서 전우들의 충성을 높이 올리신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파벌에서 무장조조는 이 고장 사민들을 악착하게 탄압하는데 미처달리던 《오백시》순사부장에게 의심을 받

게 되였다. 무장조조가 경찰관주재소살을 지나 갈 때 순사부장은 일행의 주재소로 불려들이었다. 그리고는 그들의 몸을 수색하려고 하였다. 바로 그때 김형권동지께서는 권총을 뽑아드시고 우리는 네놈들에게 빼앗긴 내 나라를 찾기 위해 싸우는 조선혁명군이다, 네놈은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이니 용서할수 없다고 추상같이 위협시며 《오백시》놈에게 복수의 용탄을 안기시였다.

그날 김형권동지께서는 군중들앞에서 격동적인 만일연설을 하시였다. 김형권동지의 연설은 군중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기도 하였다. 김형권동지께서 파벌에서 올리신 충성,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 명도하시는 조선혁명군의 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조국방위의 심신을 안겨준 혁명의 대이 려였다. 과 칼 리를 떠나신 후에도 김형권동지께서는 항경남도의 여러곳에서 눈부신 군사정치활동을 벌이시어 국내인민들의 만일투쟁을 고무하시고 원수들을 커다란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으시였다. 이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최고령도 《세기와 더불어》에 파벌에서 추조리를 내고 떠난 무장조조일행은 봉오풀어에서서 총산정찰사 사병적 주입이란 승합차를 억류하고 그밖의 승객들에게 반일선전을 하였고 편이 편이 리원군 몽양일대에 진출하여 배리락과 대위위를 비롯한 여러 지점에서 숲구이로동자들을 상대로 정치사업을 하였다. 이러한 조건이었으나 투쟁은 항상 적극적이었다고 쓰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친목에게 제로의 시어 형제에 유이든 불이 되었을 때에도 투쟁을 멈추지 않으시였다. 일제의 교형비들이 붙이대는 중세기적인 모진 고문도 위대한 수령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김형권동지의 변함없는 충실성을 허물수 없었다. 어느날 적들이 들이대는 악착한 고문도 한동안 정신을 잃었던 김형권동지께서는 변면에 의지하여 일어서시며 네놈들이 우리를 죽일수는 있다, 그러나 밝아오는 태양의 빛은 그 어떤 빛도 못마치 못했었다. 이제 어떤 힘도 없었던 조국방위를 누리고 만물을 소생시켰었다. 그것은 꼭 오고야 만다, 조선독립 만세! 라고 소리같이

해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로 불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민심을 허서 추조리를 내고 떠난 무장조조일행의 비렬한 행동을 후도도 용서치 않으시

였다. 감방에서 김형권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다 없어졌다고 쓴 어느 한 신문의 기사를 보게 되시였다. 이때 김형권동지께서는 격하신 어조로 우리는 늘들의 어용신문에서 실린 이 기사에 속지 말아야 한다. 김형권동지께서는 다 없었던것은 김형권동지뿐이 아니라 세백간 거짓말이다. 김형권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는 지금 대병력으로 자라나 도에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 고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것이며 반드시 일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것이다고 적들의 교활성과 허위성을 날림이 폭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무장투쟁의 선을 받들어 법정에 나서시여도 일제의 죄상을 추상같이 탄피하시면서 무장한 강도들과는 무장으로 싸워야 한다고 명명히 대담한 김형권동지께서

본사기자 김정호

려나가고 하겠다. 심금에 울리는 일꾼들의 호소에 고무된 단부들은 이날 한사람같이 떨쳐나 하나 서민관객들을 친히 맞이하여 축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또한 일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적인 자애를 상징짓기 간직하고 오날의 보람찬 총진군에서 이 신자적으로 대중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 김형권동지께서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진폭적인 사상교양사업은 그대로 높은 충실성으로 이어지고있다. 지금 한방의 일꾼들과 단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적인, 강군님을 기어이 실현할 끝없는 열의에 넘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된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로동신문 김명순

다수확의 비결은 농장원대중의 정신력발동과 과학기술에 있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에서 뜻깊은 올해 농사에서 통장상을 받았다. 논벼를 정모당 1.0t 이상, 최고 1.3t을 생산함으로써 여러번이 생김이래 처음 보는 대풍을 마련한 것이다. 쌀이 넘쳐나야 웃음이 넘쳐나고 오국협에서 행복과 기쁨의 웃음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오국협동농장의 전체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당의 농업방향을 관철하는

데서 전국의 앞장에서 나아가 하겠소이다.》

어려리법사람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올해에 위한 수명년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전국농업부문의 일정에 걸맞게 영예를 지니었다.

우리는 이곳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당이 펼쳐준 황금밭의 역사는 어떻게 빛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본다.

《가정부인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시무보를 모실때, 자식들을 돌볼때, 남편과 시동생들을 시중할때 언제 자기 생일을 제대로 챙겨 주셨습니까, 아마 우리 작업반장, 분조장들이 그들의 어머니가 된 심정으로 생일상을 차려준다면 녀성농장원들 모두가 혁신자가 될것이고 분조와 작업반은 한가정으로 될것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모든 작업반장, 분조장들이 농장원들의 어머니수발을 하기 위해 열육의 정을 쏟아부었다. 이것은 그대로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킨 결과로 나타났다.

모내기 현장인 어느날 아침 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 10여명 관리위원회 일군들이 제3작업반 현장에 나타났다. 모내기일이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토레시업을 위해 나온것이라고 짐작하고 기분이 저락되었던 작업반원들은 일군들이 저마다 일손을 잡고 팔을 휘둘러는 모습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일군들이 웃음을 띠고서 모내기장에 나서면서 이가나.

《자, 경기에 전 전이 후방사업을 맡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관리위원장의 그 말에 온 작업반원들이 흥이 나서 벌떡 일어났다. 강령으로 알려진 일군들을 작업반원이 이기자 작업반원들의 기세는 하늘에 닿았다. 이런 그들을 고무시켜준 일군들은 통정한 후방봉사자들을 차

에서 부러워하고 떠나갔다.

사실 일군들은 모내기전투에서 뒤지고있는 이 작업반에 나와 배구경기를 조직하고있고 우정 저주교 후방사업까지 해줌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높여준것이었다. 그 사연을 조금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어찌 모를수 있겠는가, 그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면서 새로운 결의를 안고 펼쳐나던 혁신을 일으켜나갔다.

정신력발동의 묘수를 찾아주고 헌신하자

황금밭은 어떤 일군을 요구하는가? 위대한 수명년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정책을 무조건 관철하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진 일군, 우리 당이 바라는대로 농장원대중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여 온 정당한 정신력을 최대한 발휘시켜나가는 일군이다. 이런 일군들이 지켜선 단위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이 총괄되어 기적을 창조하게 된다.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이 그렇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최영삼관리위원장이 오국협동농장에서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된것은 지난해 10월초였다. 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날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극교양실 참관후 여러날 벼가을이 시작될 전에는 나가 농장원들과 함께 담뭍거리면서 흥분을 더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의 생각은 깊어졌다.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는 송풍기가 되자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우리는 알곡 정모당 1.0t을 생산할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과업들은 농사자 기본인 조건에서 논벼를 이치면 생산해야 한다는 과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일군들이 이 과업을 힘으로, 지성의 명명으로 받아들이고 과학농사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었다면 1만농장물사이의 다수확정령은 무슨 문제가 없겠습니까.》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우리는 알곡 정모당 1.0t을 생산할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과업들은 농사자 기본인 조건에서 논벼를 이치면 생산해야 한다는 과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일군들이 이 과업을 힘으로, 지성의 명명으로 받아들이고 과학농사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었다면 1만농장물사이의 다수확정령은 무슨 문제가 없겠습니까.》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우리는 알곡 정모당 1.0t을 생산할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과업들은 농사자 기본인 조건에서 논벼를 이치면 생산해야 한다는 과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일군들이 이 과업을 힘으로, 지성의 명명으로 받아들이고 과학농사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었다면 1만농장물사이의 다수확정령은 무슨 문제가 없겠습니까.》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우리는 알곡 정모당 1.0t을 생산할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과업들은 농사자 기본인 조건에서 논벼를 이치면 생산해야 한다는 과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일군들이 이 과업을 힘으로, 지성의 명명으로 받아들이고 과학농사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었다면 1만농장물사이의 다수확정령은 무슨 문제가 없겠습니까.》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은 어떤 일군을 요구하는가? 위대한 수명년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정책을 무조건 관철하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진 일군, 우리 당이 바라는대로 농장원대중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여 온 정당한 정신력을 최대한 발휘시켜나가는 일군이다. 이런 일군들이 지켜선 단위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이 총괄되어 기적을 창조하게 된다.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이 그렇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은 어떤 일군을 요구하는가? 위대한 수명년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정책을 무조건 관철하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진 일군, 우리 당이 바라는대로 농장원대중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여 온 정당한 정신력을 최대한 발휘시켜나가는 일군이다. 이런 일군들이 지켜선 단위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이 총괄되어 기적을 창조하게 된다.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이 그렇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은 어떤 일군을 요구하는가? 위대한 수명년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정책을 무조건 관철하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진 일군, 우리 당이 바라는대로 농장원대중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여 온 정당한 정신력을 최대한 발휘시켜나가는 일군이다. 이런 일군들이 지켜선 단위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이 총괄되어 기적을 창조하게 된다.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이 그렇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은 어떤 일군을 요구하는가? 위대한 수명년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정책을 무조건 관철하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진 일군, 우리 당이 바라는대로 농장원대중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여 온 정당한 정신력을 최대한 발휘시켜나가는 일군이다. 이런 일군들이 지켜선 단위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이 총괄되어 기적을 창조하게 된다.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이 그렇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은 어떤 일군을 요구하는가? 위대한 수명년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정책을 무조건 관철하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진 일군, 우리 당이 바라는대로 농장원대중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여 온 정당한 정신력을 최대한 발휘시켜나가는 일군이다. 이런 일군들이 지켜선 단위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이 총괄되어 기적을 창조하게 된다.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이 그렇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과업반대중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들의 올해 농사지도경험을 놓고

황금밭의 역사는 과학농사를 떠나서는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때 영농공정물에서 다수확의 확고한 담보로 마련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해주는바는 크다.

고산군 민발전소 준공식 진행

강서탄광에서 석탄생산성과 계속 확대

【고산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고산군민발전소가 훌륭히 임해서 준공되었다.

고산군민발전소는 지역시장의 위력으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을 위기에 신각같이 펼쳐나선 618건설혁명대원들과 군민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솟아난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파수발전소를 적극 추방하고 고산지역 인민들에게 보다 유효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수 있는 훌륭한 도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강서탄광에서 석탄생산성과 계속 확대

강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7개년 계획업무를 높이 받들고 생산동력을 떨쳐내던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넘쳐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전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통합된 자료가 의하면 탄광에서는 지난 8월에 2쌍이던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데 이어 1쌍, 청년경, 6쌍, 혁신경 등 여러 쌍들이 연이어 승진공로를 올리는 위훈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탄광에서는 준비발전과 기본발전설비를 지난 시기보다 훨씬 끌어올려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 놓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강서탄광에서 석탄생산성과 계속 확대

강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7개년 계획업무를 높이 받들고 생산동력을 떨쳐내던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넘쳐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전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통합된 자료가 의하면 탄광에서는 지난 8월에 2쌍이던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데 이어 1쌍, 청년경, 6쌍, 혁신경 등 여러 쌍들이 연이어 승진공로를 올리는 위훈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탄광에서는 준비발전과 기본발전설비를 지난 시기보다 훨씬 끌어올려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 놓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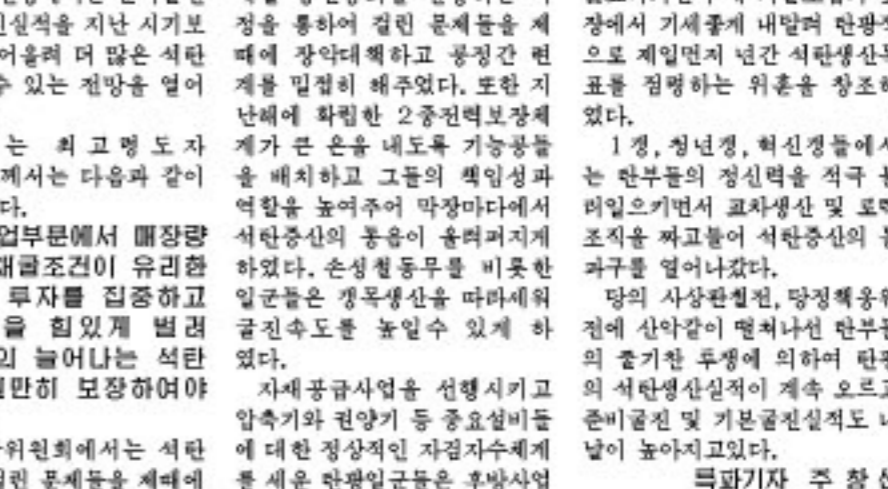
강서탄광에서 석탄생산성과 계속 확대



강서탄광에서 석탄생산성과 계속 확대



강서탄광에서 석탄생산성과 계속 확대



초보민심을 저버리는 반역적 망동

지금으로부터 1년전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당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특대형정치추방사건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투쟁의 초보를 높이 들었다. 찬바람과 눈비속에서 6개월동안이나 전개된 대중적인 초보항쟁은 전미사대에 제철과 부정부패로 악취를 풍기는 남조선의 정치풍토를 추방시켜 갔었고 민중의 새시상을 안아오려는 민심의 세력적 과잉이었다.

급제맞은 박근혜당이 인민들의 항거기운을 억누르고 파멸의 나락에서 헤어나오려 애썼을 때와 동떨어져 있다고 극우보수단체들을 내몰아 맞붙었던 반동까지 부리며 최후압박하였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항쟁의 초보는 더욱 활화산마냥 타올라 마침내 박근혜당에게 비참한 파멸을 선고하였다.

남조선인민운동사에 뚜렷한 자취를 새긴 박근혜초보투쟁은 좌파조직들과 단민인적악정, 사대매국과 동족대적들을 일삼아는 피비호색적당에 대한 항거이었고 인민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초보항쟁의 승리는 민심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매국당세력은 반드시 멸망하며 정의와 진리를 통치 인민대중의 힘은 그 무엇보다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박근혜초보투쟁이 시작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자문하는 무엇인가고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당연한 질문과 답이다.

현 남조선당국이 들고나온 《제세압박과 대화병행》이라는 《대북정책》을 놓고 보자 그것은 이전 보수 《정권》들의 동족대적정책과 본질상 다른 것이었다. 오히려 《대회》의 보지기에 강추어진 대결정책은 더욱 위험한 것이다.

한때는 미국에 《아니》라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북남관계에서도 독자적인 정책을 세울 것이니 호기를 부린 남조선정권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채서 있었고 자기의 전미사대적근심을 가리우기 위한 치세술이었다는 것을 실증해 주었다.

지금 피피들이 즐본 떠돌아다니는 《제세압박과 대화병행》이라는 열도당도 않은 《대북정책》은 우리 공화국을 압박하기 위해 현 미행정부와 고안해낸 사상 최악의 대조선정책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의 복사판이다. 피피들이 자기들의 《대북정책》과 트럼프의 대조선정책인 《서로 잘 조화를 이룬다.》라고 피세를 올렸었다.

현 피피집권세력이 미명박, 박근혜의 《대북정책》을 《북북관계해결》의 간판에 외세와 아합하여 만공화국경제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범죄적인 대결정책을 따르겠다고 떠들던 그 이모로 초보민심을 미국식민주주의가 활짝 피어 꽃을 피우려는 망발이냐고 묻는다.

남조선인민들이 당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상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정책》, 《외향하고 주제를 넘어서는 주장을 담은 정책》,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외면한 정책》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은 이 《대북정책》과 정반대는 아니었지만 보수 《정권》 시기의 반역적정책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말하여 초보항쟁에 의해 출현했다고 하는 《정

권》이 초보민심에 풍운연히 역행하고 있다.

지금 초조선인민들은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이것은 《북핵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이며 핵안보지침의 북침전쟁장단에 맞추어 총을 추는 분별없이 남침하는 현 남조선당국의 반역적책사의 필연적결과이다.

남조선정권자는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씨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말하고서도 집권후 미국상선의 요구를 스스로 철회하며 《씨드》발사대 추가개발을 강행하고 핵항공포함, 핵잠수함, 핵전력특기 등 미전략자산들을 다치는데로 끌어들이며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이는 등으로 트럼프의 핵전쟁장안기간에 불을 대주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초보 《정권》임을 운운하고 《초보항쟁의 동력을 잃어 갔다.》고 다짐하고서도 보는바와 같이 미국에 의존하여 《안보》도 보장받고 명멸도 받지않고 있다는 전미사대의 식에 사로잡혀 정외와 통일, 북남관계선을 바라는 초보민심을 서슴없이 짓밟고 있다.

남조선정권자가 《초보는 《대통령》으로서의 출발점》이라고 《초보민심에 화합하는 것은 핵무》라고 하면서 초보민심을 따르겠다고 떠들던 그 이모로 《초보항쟁은 미국식민주주의가 활짝 피어 꽃》이라는 터무니없는 망발까지 폄하하며 초보민심을 참을 수 없이 우롱하는 인민들을 격분시키고 있다.

지금 트럼프때때로 초조선인민과 그 주변일대에 핵전략자산들을 대대적으로 집중시키면서 우리 공화국을 엄중히 위협공갈하고 《공사적선배》에 대해 떠돌아 다니는 반역적정책을 부리고 있다. 이 무분별한 망동에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미국내에

상전과 주구의 위험한 침략전쟁모의관

며칠전 미국과 남조선피피들이 서울에서 49차 년대안보회의를 열었다. 미국방장관 마리스, 피피국방부 장관 송영우가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남조선에 배비된 《씨드》의 작전운용문제, 미전략자산들의 초조선반도순환배치확대문제, 미씨일시침계정력문제, 전사자전통제전전환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여기에서 미국과 피피들은 《북미씨일위협》에 대한 정보공유와 미핵항공포함전략단호, 탄도미씨일정보호론 등 군사적조치들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보다 앞서 미국과 피피합동보안본부의 장들은 42차 군사위원회에서 《북의 핵, 미씨일위협》에 대비한 연합전력방안과 《작전계획 5015》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협의공문을 열었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초조선인민을 제재하고 그에 따라 미씨일위협을 우리에 대한 군사적공격기도를 포괄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사과는 현 남조선정권과 외세에 의지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그와 아합하여 동족과 대항하는 데는 보수 《정권》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민심은 천심이며 초보민심이 만기를 들린 남조선당국의 운명도 판정이다. 남조선당국은 초보민심의 눈발과 폭풍바다로 리명박, 박근혜때의 동족대적정책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망동을 걸어서 봐야 한다.

이러한 속에 미국과 피피들이 년대안보회의와 군사위원회라는 위협전단한 전경모의관을 벌여놓고 우리에 대한 위협공갈의 도수를 더욱 높이기로 한 것은 매우 엄중한 사태이다.

이런데 미국과 피피들이 미전략자산들의 초조선반도순환배치확대를 추진하기로 하고 북침전쟁 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15》를 경신하기로 한 것은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기도의 뚜렷한 발로이다.

미국은 핵항공포함을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저들의 비위에 거슬러는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공갈, 선제공격수단으로 써먹고 있다.

미국과 피피들이 꾸민 《작전계획 5015》는 추구는 목적과 그 실행수단, 수행방식으로 볼 때 매우 도발적이며 흉악무도한 북침전쟁작본이다. 여기에는 그 무슨 《합수작전》과 우리의 전략적요수지들을 노린 특수전, 기습상륙작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피피들이 핵항공포함과 전략특기기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초조선반도와 그 주변일대에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작전계획 5015》를 경신하려는 실행하려는 사실과 주구의 위험한 침략전쟁모의관이라는 것을 명증해 주었다.

조선인민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재난을 풍어오는 침략자, 도발자는 다음이던 미국과 피피들이다.

내외외교관들이 세아무리 전략자산들의 초조선반도순환배치 확대, 《작전계획 5015》의 경신이니 하고 허세 부리도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그것이 한낱 파멸의 나락으로 끌어들여지는 거대한 자들의 단발머적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피피외교관들은 무모한 군사적공격과 북침전쟁도발소동으로 치레질하는 풍족적 말발굽이라는 것을 흑마로 알고 경계당동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한 대결광신자는 추호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최근 피피국방부 장관 송영우 높은 풀수에 배인 만공화국대결양심을 그대로 드러낸 서정적이지 않은 말발과 껌치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적개심을 무성케 폭발시키고 있다.

높은 당장 전쟁이 터질까봐 겁먹은 겁쟁이들인 주제는 피피국회 《국정》 감사과는 배신적인 말대꾸를 내놓고 해자고 허비박을 바꾸 돌려대다 못해 《북북피》 나발까지 꺼피질 없이 불어댄다.

저런 말발은 결코 금한 고비를 넘겨버리고 열에 주어진 소리로 아니고 생각없이 아무 소리나 배는 경망스러운 자의 실언도 아니다.

사주술의 송곳은 감추지 못하는 법이다.

송영우는 피피국방부 장관 감투를 뒤집어쓰기 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 대해 온갖 잔인 주장을 늘어놓았다.

지난 6월 피피국회인사청문회 때 높은 북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북을 분별화 《주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미국 지면이었던가 하면 7월 국

방부 장관 취임식에서는 북의 핵, 탄도미씨일시침은 《한》 반도와 세계정세를 위협하는 중대 도발이다. 북의 어떤 위협도 제압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고 기명을 올렸다.

9월 피피국회인사청문회에서는 감히 한술먹지 못할 정도로 《북침전쟁지도부합수작전》에 대해 제멋대로 떠들었다. 그것이 논란이 되고 비난이 터지자나오는 와중에도 자기의 언급이 무절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피기를 부러대고 바로 송영우이다.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높은 저런 말발에는 우리에 대한 악의가 가지처럼 붙어 있다.

최근에는 《합수작전》 계획과 《북의 심장부를 파괴》고 정세공정사단상설까지 떠들어 대며 분별없이 남치고 있다.

이것은 송영우가 야말로 북측에 대한 적대감, 《합수공정》이 야말로 풀수에 배신대로 배인 지독한 대결광신자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높이 이번이 제쳐낸 말발은

서울에서 평화시국회의의 진행

남조선인민비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220여명 정당, 단체들이 망라된 트럼프반대공동행동이 1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트럼프 반대, 전쟁 반대》 평화시국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전민단체 공동대표 한홍욱과 통일연선부,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박기환, 민주로총 위원장 직무대행 최종진, 통일회총련맹 의장 김영호, 민족당 상임대표 김경훈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한반도전쟁위기의 원인은 북핵 위협이 아니라 최초로 핵무기를 실험에 사용하고 지금도 가망없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동아시아평화를 위기 위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정확적생존을 위해 국민 모두는 전쟁미지침이 트럼프의 생각을 견결히 반대하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트럼프에게 핵폭탄을 던져 그와 같이 말라하는 것이 초조선인민의 명명이라는 것을 천 진심자는 알아들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스스로 미쳤다고 자인하는 트럼프와 같은 정실명자를 대통령으로 둔 미국이 불쌍하게 키우는 정실명자라고 선언문을 단행하였다.

선언문은 트럼프가 북의 《위협》을 구실로 초조선반도에 전쟁위협을 고조시키고는

평화시국회의의 진행

선언문은 트럼프가 남조선에 핵공격을 위해 국민 모두는 전쟁미지침이 트럼프의 생각을 견결히 반대하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트럼프에게 핵폭탄을 던져 그와 같이 말라하는 것이 초조선인민의 명명이라는 것을 천 진심자는 알아들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스스로 미쳤다고 자인하는 트럼프와 같은 정실명자를 대통령으로 둔 미국이 불쌍하게 키우는 정실명자라고 선언문을 단행하였다.

선언문은 트럼프가 북의 《위협》을 구실로 초조선반도에 전쟁위협을 고조시키고는

대립과 갈등의 진창속에 빠진 정계개편놀음

최근 남조선에서 다음해의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정계개편이 본격화되면서 각 정치세력들이 의회내외의 총출동인원 싸움도 남도 치열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바른정당》이 정계개편의 진창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 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김우성과의 그것을 반대하는 류승민과도 갈라져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다.

자기의 비정치적목표를 추구하며 《도주》와 《탈의》에 생환해 인숙적인 김우성에게서 높은 류승민의 반대에 부딪히고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놀음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 이것이 당한 집안이나 다음없는 《바른정당》을 떠나 다시 《자유한국당》에 거처를 정함으로써 불은 한 정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배신행위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전략제거를려는 당대도 흥준표들이 비롯한 비박계가 밀리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놀음에 대해 《정치적야망을 끌어들이기 위한 처사》라고 저서마다 비난하고 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전략계산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자들은 저들의 씨를 말리려고 발광하는 흥준표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히 반발해나오고 있다.

남로 성행하는 남조선피뢰군에서의 성범진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피뢰군에서 성범진이 남로 성행하고 있다.

피뢰군장부가 출역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피뢰군에서 나타난 성범진행위는 2013년

반트럼프, 반미투쟁본부 미국대사관앞에서 집회

남조선인민비트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반트럼프, 반미투쟁본부 1일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앞에서 《트럼프전쟁정국 정지 반대 및 북침전쟁연습 즉각 중단》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민족의 자주적권을 전방위적으로 방어하고 평화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진정한 안보의 시상은 민족공조강화와 대외교류로 평화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참가자들은 《트럼프의 전

평화와 안전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전쟁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평화적방법은 오직 조미평화협정체결뿐이라고 강조하였다.

현 당국이 트럼프를 계속 추종한다면 그 운명도 트럼프의 운명과 다를바 없게 될 것이라고 성명은 경고하였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미국대사관에 항의문을 붙이고 《트럼프전쟁정국 정지 반대!》, 《트럼프를 끝내!》, 《북침전쟁연습 중단!》 등의 트럼프시위를 벌였고 《성범진》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것은 미국의 북침전쟁사관인 피뢰군의 정실도적적정실의 일단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보수익적패당을 끝까지 징벌하기 위해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

